



안녕하세요? 이미정수녀입니다. 저는 현재 본원에서 양성자(수련자)들을 동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만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매년 아니 매일 새롭게, 함께 살아가는 젊은이들로부터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높고 현실은 더딘 우리가 마더 씨튼처럼 매일 새롭게 주님께 눈을 들어올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1989년 본촌마을에 있는 현재의 수녀원으로 입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 섬, 완도에서 2남 2녀(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둘째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도시(광주)로 이사 와 철모르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5,18를 겪은 후 철이 좀 들었는지?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없는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살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지요. 그러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한 친구 덕분에 세례를 받고 성당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몇 수녀원의 성소모임에서 수녀님들의 매력적인 권유(수녀원에 와서 함께



살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소를 생각했을 땐, 정의를 외치던 선배들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이라는 거창한 꿈을 안고 있었지만, 수녀원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저는 지원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세상변혁의 꿈은 환상이라는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깨어졌고, 첫 파견으로 피정 집(강진의 옛 중남부교육관) 사도직 그 후 몇 교구의 본당과 짧았지만 미국 시카고 본당의 체험, 모원 씨튼힐에서 신학공부, 돌아와서 지, 청원자들을 동반, 다시 본당수녀로서 일하다 본원으로 와서의 삶... 정말 눈 깜짝할 사이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하도록 재촉하시는 주님께서는 수도생활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샘물이 냇물과 강물을 만나서 함께 큰 바다로' 나아가듯이



수녀님들과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하며, 함께 사는 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겸손하게 살아 가다 보면 어느새 보다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꿈을 꾸니다. 저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Hello, I'm Sr. Lee, Me Jong. Companionship with the novices, I am living at the Provincial House in Gwangju.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I began my ministry with the initial formation sisters; still I am invited to encounter "God" who comes to me with new images every day and every year through them. As humans, we are aware that our ideals are high, however, the reality is slow to reach the ideal. By daily raising our eyes up to the Lord as Mother Seton did, I am trying to respond to the call to "Begin again today!"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89.

Born on Wando Island located at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I spent

my elementary school years there before moving to Gwangju. I have two brothers and sisters, I am the second child. My parents and grandparents poured so much love into my life. As I grew older and experience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righteous uprising of citizens asking for democracy and standing against an illegal power grab by the New Military Group), I began to ponder the meaning of life.

What should I do in order to contribute something to bring the world justice and peace, not violence and war? Thinking of these philosophical questions, I was invited to the Catholic Church by one of my friends. I participated in catechism class and finally was baptized. I received caring calls from some religious sisters I knew at that time. In those days when I thought of religious life, I had a big dream of the possibility to change the world like my senior college students who fought for the freedom of democracy.



However, within a year of my affiliate period at the convent, I realized the fact that the dream of changing the world is an illusion.

My dream was shattered, and I was first missioned to the Retreat House in Gangjin, and then I worked at several parishes

including Korean Martyrs' Church in Chicago, studied Religion at Seton Hill, companionship with the sisters in initial formation, worked at parishes again, and now I returned to the Provincial House. Thirty years of religious life passed like an arrow.



Our Lord, who creates the world with love and urges us to change and grow new every day, seems to be speaking to me through my religious life. We are not living alone in this world. As



if spring water meets streams and rivers, and flows together to the ocean, we are praying together and collaborating with our sisters for the world. When we try to love and work for those we live with in this world, we are able to be grateful to one another and contribute to the world to make it better and more beautiful. I am thankful for the Here and Now. And I dream anew once again. I want to be a 'little light' that illuminates the world suffering from the COVID-19.